

전북대 GTEP사업단

# 우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 수출 지원

### 다이나믹 인코스메슈 등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해외 개척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 단장 무역학과 김민호 교수)이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을 지원한다.

사업단은 최근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다이나믹(사장 박준성)과 인코스메슈(사장 김일광) 등 2개의 우수 중소

기업과 수출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다이나믹은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손톱광택기(누드 네일)를 생산·수출하고 있으며 탄소섬유를 이용한 소재부품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다.

인코스메슈는 익산 소재 벤처기업으

로서 화장품 및 기능성 식품을 개발, 해외수출을 시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제품개발 능력이 뛰어난 업체다.

이에 따라 전북대 GTEP사업단은 해외 바이어 발굴과 이 기업들의 해외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에게도 무역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을 기

회를 갖는다.

김민호 사업단장은 "최근 세계 통상 환경이 어려워지고 특히 사드 문제로 대중국 수출이 복잡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학이 중소기업 수출지원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협약을 체결한 기업 외에도 도내 많은 업체들이 우리 사업단의 수출 지원 활동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동하복 포함 27만4,359원

올해 전북도내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이 동하복을 포함해 27만 4,359원으로 정해졌다.

동복은 19만4,041원이며 하복은 8만 318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7.4% 오른 금액이다.

동복은 전년도 17만9,567원에서 8%인 1만4,474원이 올랐으며 하복은 지난해 7만5,679원에서 8%인 4,689원이 올랐다.

그러나 교육부가 정한 학교주관 교복구매 상한가격인 29만6,140원에 비해 2만1,780원이 적은 금액이다.

/정해은 기자

### 도교육청, 초등학교 학부모 학교도서관 자원봉사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도서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한다.

12일 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서교사나 혁신학교 도우미 등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없는 도내 1백개 초등학교도서관에 학부모 자원봉사활동비 2억원을 지원한다.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조직돼 있거나 신설학교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하며 도내 417개 초등학교 중 100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5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학교당 200만원씩 지원해 교통비 등을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학부모 자원봉사자는 도서 대출, 도서 정리, 장서점검, 환경정리 업무 등을 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12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박준홍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이동수리센터 운영

### 전주시, 덕진지역자활센터 두바퀴의행복사업단과 협약

### 12월까지 동 주민센터·공원 등 33차례 운영

전주시가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12일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두바퀴의행복사업단)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는 오는 12월까지 동 주민센터와 공원 등 주민 접근이 쉬운

장소에서 동별로 총 33차례 운영된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에서는 기름칠과 공기압조정, 변속기조정 등 자전거 기본점검과 브레이크와 핸들 안장조정, 단순평크수리 등에 대해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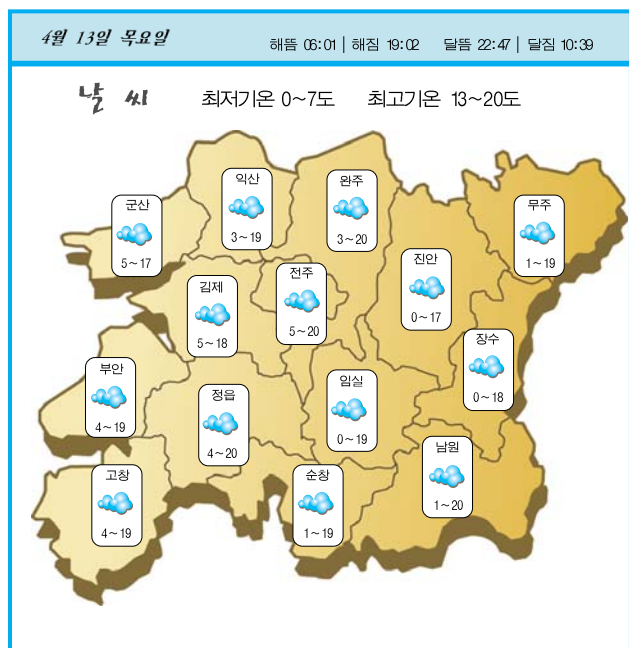
또 타이어와 튜브 체인교환 등은 일반 지불하면 되고, 자전거 안전 및 간단한 기본점검·정비요령 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는 방치자전거와 가정 내 쓰지 않는 자전거 등을 기증받아 수리하는 사업도 전개한다.

시는 앞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자전거 시범학교와 유관 기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전거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면 교통비 절감과 운동효과가 있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도 발생시키지 않는 등 장점이 많다"며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2018학년도 수능 학습전략 안내·입시 정보설명회

2018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전략과 대입정보 등을 들을 수 있는 입시설명회가 15일 오후 2시부터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전라북도교육청과 EBS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도내 고3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6백여명을 대상으로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다.

EBS 전속교사와 대표강사 등 3명이 △2018 대입의 이해 및 성공전략 △

수능대비 EBS 활용전략 △수능대비 과목별 학습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각 강의시간마다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가 강사들에게 입시에 관련한 궁금한 내용을 묻고 답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날 설명회 내용은 현장 녹화 후 EBS(www.ebs.co.kr)에 탑재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전주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총 137,520필지(완산구 65,150필지, 덕진구 73,37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가 열람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생태도시계획과와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해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회신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김종영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더럽히지 않는다** 행복한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성의 '보급'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